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새천년개발목표”**  
(해외사회공헌- 기업의 블루오션인가)

일시: 2008.9.8 AM10:00-PM5:30

장소: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 센터 330호

참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 관심 기업, 개발 NGO

정부 및 유엔 관계자 등 140여명 참석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철기 사무총장 개회사**

기업들의 해외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히 봉사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사업 창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최근 연구들을 주목하며, 저개발 국가는 상당 부분 미개발 자원의 부국이기도 함. 21세기는 국제사회의 남은 동토인 아프리카를 개발하는 한 세기가 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도 더 관심을 갖고 세계동향을 주시하고, 21세기 국제개발의 대장정에 과감히 뛰어 들어 참여하기를 바랍.

**-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Zhe Yang 대표 개회사**

UNDP에서 발간한 ‘모든 이를 위한 가치의 창출-저소득층과의 사업전략’ 보고서(GIM Report)를 한국에서 발간,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새천년 개발 목표(MDGs)의 성취는 전체적으로 두드러진 반면 국가별, 지역별 성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사업 모델에 저소득층을 통합하고 참여시킬수록,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이번 심포지엄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관계자들을 위한 공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함.

**\* 오전 세션**

**① ‘MDGs and Role of Private sector’ : 김남석 박사(UNDP 뉴욕본부)**

- 2000년 9월 189개 정상들이 모여 새천년개발목표(MDGs) 채택,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함. 동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남아메리카는 보통의 속도로 MDGs 달성이 진전되고 있으나 아프리카는 아직도 더딘 상황임.(1990년 아프리카 빈곤율 51%였으나 현재상황도 비슷함)
- 이에 민간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 성공적인 수익을 올린 기업들의 사례와 전략을 소개한 GIM(UNDP Growing Inclusive Markets

Initiative) Report 내용 소개->이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과 협력을 위한 platform이 될것임.

### ②‘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 방향’ : 외교통상부 김형태 개발협력과장

-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확대 계획과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정의, 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적 수행 및 원조 효과성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로 인한 PPP 필요성을 설명함.
- 정부-기업-수원국 간 win-win 효과를 내는 PPP 구축의 기본 방향과 스타벅스, 스웨덴 Tetra Pak, 영국 기금 운용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함. 기업이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③‘MDGs와 한국의 역할’ : KOICA 정책연구실 이현주 연구원

- MDGs의 배경, 구성과 특징, 중간 이행 현황을 살펴 보고, 빈곤감소, 보건 및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 등의 MDGs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상황을 설명함.
- 경제 규모와 외교 역량에 걸맞는 책임 수행과 ODA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원조, 한국의 개발 경험을 기초로 한 차별화된 원조 제공 등 한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빠른 시간 내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몇 안되는 국가인 한국이 구체적, 포괄적으로 해외 원조 사업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함.

### - Panel Discussion :

#### 1. 한국대외정책연구원 권율 ODA 팀장

- 2008년은 MDGs 중간 점검의 해. DAC(Development Assistance Group,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 산하기구)의 2010년 달성목표인 파리 선언, 2015년 MDGs의 채택으로 인해 이제 개발 협력의 패러다임이 바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는데, 기업들이 다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생각해야, ‘親빈곤층 사업모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확장의 계기가 될 것임. 또한 현지의 실질적인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기업들에게 많은 matching fund 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기업-공공 부문간 협력 프로그램들이 풍부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이러한 모델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사업들에 대한 창의적인 모색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러한 많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funding이 쉬워지고, 국민 의식도 고취되고, 해외 원조에 대한 저변이 마련될 것임.

#### 2.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윤현봉 사무총장

- 아프간스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1999년 회원단체 20개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지원의 규모가 점점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임.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PPP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일부 기업들에 의해 선도되고 있음. 삼성의 경우, 장학재단을 통하여 800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정도를 해외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현대도 청소년, 청년 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민간 부문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PPP의 구축과 역할이 기대됨.

#### -Q&A Session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 기구의 코멘트들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 김남석 박사: 국제 기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기구이고, 구체적인 코멘트는 제시하지 않으나, 현재의 트렌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SRI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음.

2. NGO들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현지 정부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NGO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인 협력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정부가 해외 원조에 대해 제공하는 matching fund에 대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김남석 박사: 국제 기구는 정치적인 기구이며, client는 항상 정부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NGO와 현지 정부의 협력 문제에 있어서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쪽으로 접근한다면 효율적으로 각 주체가 협력할 수 있을 것임

-외교통상부 김형태 과장: ODA 등의 해외 원조에 있어서는 공여국, 수원국, 국제 기구 등 각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좀 더 중,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외 원조에 임하게 된다면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효과들이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현주 연구원: matching fund 문제는 중기적인 계획이며, NGO를 지원하는 항공권 기금을 마련해 주는 등 NGO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3. PPP를 민간이 주도합니까, 아니면 정부가 합니까, 아니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 협력을 하는 것입니까?

-김남석 박사: World Bank Market Place Project처럼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 사례가 더 많았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민간 부문과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혹은 민간 부문이 주도적으로 PPP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오후세션

#### -국내 기업 해외공헌 사례 발표

##### ①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 : SK텔레콤 고창국 사회공헌 팀장

- 진출국가, 사업관련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의 수요를 고려, 지역기관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베트남시에서는 IT와 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질병예방, 안면기형 수술 등 의료지원, 중국에서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과

긴급구호를, 몽골에서는 축산농장, 가축은행 등 유목민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는 질병예방, 교육확대 등의 MDGs에 기여함.

-SKT 사회공헌 활동은 단기적인 시장확대 효과보다는 진출국가 정부와의 우호적인 중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정립하고, 베트남, 중국 등 지도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 해당국가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됨.

## ②Quality in your life : 유진크레베스(주) 문영기 대표이사

- 의료지원(심장병어린이 치료 및 병원설립), 문화체육사업(전통문화, 태권도), 교육사업(한국어 교육) 같은 공헌활동을 통해 해당지역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돕고 있음. 베트남, 라오스, 중국, 필리핀 등 지역에서 MDGs와 연계된 해외공헌활동을 하고 있음.

- 사내 직원들의 애사심과 자긍심 고취 및 현지직원들의 신뢰도와 협조가 강화되어 화재와 같은 회사 위기시에도 극복의 큰 힘이 되었고, NGO, 복지기관 등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더 큰 성과를 이룸. 또한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수출 수주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고, 현지 정부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사업 기회도 확대됨.

## -다국적기업 해외공헌 사례 발표

### ③Pfizer' s CSR : 한국 Pfizer 대외협력부 이은정 차장

- Pfizer의 전략적 접근 방법은 'Treat, Teach, Build, Serve'임. 이러한 모토 하에 베트남, 캄보디아, 세네갈, 가나, 케냐 등지에서 International Trachoma Initiative(맹인 예방 프로그램), Diflucan Partnership 프로그램(에이즈/HIV 예방 프로그램), 말라리아 퇴치 운동, 감염성 질환 연구소, Global Health Partnerships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MDGs의 질병퇴치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저소득층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익률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음.

### ④P&G Live, Learn and Thrive : 한국 P&G 최병욱 대외업무총괄 이사

- LLT Program을 통해 2007년 한 해에 2억 리터의 깨끗한 식수를 제공 46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기여(PUR 물 정화 키트를 개발, 아프리카에 원가 제공하고 지역의 소매상인들이 PUR제품 판매를 통해 수입을 올리도록 지원), 중국의 희망 학교 사업, 신생아 백신 제공 등을 전개해, 깨끗한 식수 제공, 초등교육 확대, 유아 사망률 감소 등의 MDGs 실현에 기여함.

- 전 임직원의 참여, 외부 기관, 전문 기관들,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CSR을 넘어서 사회의 이슈에 적극동참,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목표임. 실제로 신생아 파상풍 예방 캠페인 전개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구매시 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게 되고, 이는 영국에서 펌페스 기저귀의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올리는 계기가 됨.

### ⑤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시민활동 : 한국 Microsoft 김은현 시티즌십 상무

- 50억명의 경제소외계층도 기술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있고 그것의 실현을 돕는다는 목표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자사 비즈니스와의 결합, 언리미티드 포텐셜(Unlimited Potential)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PC 교육, IT 센터 지원 등의 교육 혁신, 일자리와 기회의 창출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전파라는 MDGs에 기여하고 있음.
- MS는 이러한 공헌 활동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또한 자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됨. 이는 수익과도 연결된 전략적 접근임.

### -Panel Discussion과 Q&A

#### 1. 한겨레 광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임. 지난 1년간 급성장한 협회처럼 기업의 사회공헌도 선택이 아닌 필수임. 중국은 2006년 공기업 지침으로, 빠른 속도로 CSR 관련 회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음.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극히 일부분이며 이에 대해 기준확립이 필요함. 파트너십 측면에서도 자원을 가진 기업과 전문성을 가진 NGO간의 불신을 버리고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 전경련 양세영 본부장

- 국내 및 국외 사회 공헌 간의 균형이 필요함. 국내기업의 공헌은 이제 초기단계이고, 新 사업 기회는 장기적으로 모색되는 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외국 기업 상황과는 달리 국내기업은 P&G, 코카콜라의 물 분야 공헌 사업같이 주력사업과의 연관을 통해 선명하고, 장기적인 공헌활동이 필요함. 현지 NGO와의 수준 높은 파트너십이 요구되며, 우리 기업의 노력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이해도 절실히 기대됨.

#### 3.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양용희 교수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유진크레베스 같은 중소기업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사회공헌사례 통계에 수치화되는데 한국은 전경련의 조사통계와 보고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통계를 알기 어려움.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Corporate Citizenship을 넘어 Global Citizenship의 개념을 가지고 환경윤리 분야와 사회공헌을 함께 해가며,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함. 기업내 전문가 및 전담부서 마련이 시급함. 국제적 CSR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고 컨설팅 회사들의 난립도 문제가 되며,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전문성을 가져야함. 국제무대에서 한국기업의 목소리를 내야함.

#### 4. 주철기 사무총장

-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공헌 사업 분야를 회사의 주력사업부문과 match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감함. 서구에서 만들어진 CSR 논리를 단시간에 유입, 적용한다는 것이 혼선을 가져오는 것

이 사실이며 우리의 경험이 아직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전세계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서 한국을 성공적 사례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를 List-up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음.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역시 우리나라의 CSR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준비, 기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함.

- 우리기업이 해외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시 유엔 MDGs와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봄. COP 문서에도 MDGs는 친유엔활동 내용을 기재하도록 장려되고 있음.

-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휴대폰 보급, 위성접근, 태양열 주택 등 혁신을 통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고, 빈곤층 지역도 새로운 소비 창출의 사업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도 인지해야 할 것임. 이번 회의가 그런 새로운 인식전환의 화두를 던진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함.